

홍수현

# Boundaries

2023. 3. 6. - 4. 2.

2023 해움·새들 입주작가 프로젝트

2023  
HAEUM  
SAEDEUL  
Artist  
Project

홍수현은 빛을 매개로 공간을 인지, 감각하게 하는 작가다. 작업으로 다루는 공간의 재료와 구조, 쓰임새 등을 세심히 고민한 값에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비춘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최근 탐구하는 안과 밖, 유형과 무형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다. 홍수현은 *Boundaries* 를 통해 색유리 사이로 빛을 투과시키고 이를 다시 야외에 설치된 나무 울타리 사이로 새어 나오게 두어 그 주변으로 빛을 펼친다. 만질 수 없는 무형의 빛이 일련의 경계를 지니도록 서로 다른 재료의 결합으로 주변 환경을 설계하여 전시공간 주변에 새로운 조형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홍수현은 빛을 통해 '원도우갤러리'라는 고정된 공간을 보다 입체적으로 확장했다. 이는 인간을 보게 하는 시지각적, 물리학적 빛의 개념에서 나아가 매체로서 기능하는 능동적인 빛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작가의 작업관을 보여준다. 홍수현은 해움 건물의 자재와 구조를 재료로 삼아 해움 입면의 깊이를 확장했다. 이렇게 영역화된 빛은 규모와 볼륨감, 색을 얻어 멀리서부터 관객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나무 구조물만큼의 빛의 물체를 상상하는 관객은 빛에 가까이 다가간다. 신체 속도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리듬으로 형상화되는 빛의 움직임이 관객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도한다. 해움의 파사드는 관객의 신체와 상호작용하는 장소로서 새로운 에너지를 지니게 되었다.

*Boundaries* 의 외형은 촘촘한 울타리를 상징하여 관객의 입장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 속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킨다. 관객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윤곽과 색채, 볼륨이 뚜렷해지는 오브제로서의 빛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실제 울타리 안에 갇힌 빛은 텅 빈 존재로, 다가선 이를 낫설게 한다. 홍수현은 새로워진 공간의 환상적, 유희적 측면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존 공간을 의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이질감을 연출했다. 어디까지가 안이고 어디까지가 밖인지, 무형의 빛이 물질로 거듭난 시작점은 어디인지 고민하게 하여, 관객이 공간과 심리적인 상호작용을 주고받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홍수현이 다루는 빛은 창 안에 작품을 가둔다는 원도우 갤러리의 보편성을 흐리게한다. 그로부터 확장된 갤러리 주변의 야외 공간은 새로운 물질성을 획득한 것에서 나아가 사회, 문화적으로 인식되는 정선적 체험으로서의 장으로 거듭났다. 즉, 작가가 일시적으로 세운 울타리로 인해 해움을 둘러싼 빛은 새 윤곽을 입고, 그 모양이 시간에 따라 균질해지며, 공원 내 행인은 이곳의 관객이 된다. 이 울타리는 전시라는 장소에서 밖에서 안으로의 관객 유입을 막으면서도 관객을 끌어들이며 서성치게 하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며, 주변 빛을 끌어모아 그것의 모양과 부피, 채도, 속도를 결정하는 매우 주제적인 존재로 해움에서 있다.

홍수현  
*boundaries*

목재, 시트지, LED튜브, 전선, 멀티탭, 타이머  
1650x460x250cm  
2023

## 홍수현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 1기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Kunstakademie Düsseldorf)에서 아카데미 브리프(석사)를 취득하고 마이스터슐러(Meisterschuler)를 사사받았다. 2014년 엔스헤데 예술가 레지던스 (Artist Residencies Enschede, 네덜란드)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했고, 2021년 제10회 필록스 라이트아트 공모전에 선정되면서 2인전 <<존재하지 않는, 잡을 수 없는>>(조명박물관, 2021)을 열었다.

그 외 개인전 playunderground(아트스페이스 오, 2019), bad habit(뒤셀도르프, 2019)과 단체전 Hi, A new home(수창청춘맨손, 2021), <<APMAP 2019 jeju - islander made>>(제주, 2019) 등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www.soohong.kr](http://www.soohong.kr)

## 해움 소개

2022년 고양시 장항동에 개관한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은 전 고양 600년 기념관을 리모델링한 창작공간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울트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시각예술인의 창작공간이자 지역민의 예술 향유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창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움은 예술가와 시민간, 미술과 타 분야간의 교류를 추진하는 예술 플랫폼입니다. 접근성이 높은 일산 호수공원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 시각예술의 정착과 네트워크 허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 운영시간 및 관람안내

11:00~24:00

\*현재 원도우 갤러리만 관람 가능합니다.

(104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031-906-3380

@haeum\_saedeul

# Soo Hong

고양예술창작공간 해움 원도우갤러리  
Goyang Artist Residency HAeUM

해움 새들 Goyang